

# 스포츠 활동이 다문화 학생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에 관한 연구

김지애  
(동아대학교)

1. 서론
2. 선행연구
3. 다문화사회 스포츠 활동의 해외사례
  - 3.1. 해외 다문화 스포츠 활동
  - 3.2. 독일 다문화사회의 스포츠 활동
4. 다문화사회의 스포츠 활동 현황
  - 4.1.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 현황
  - 4.2. 다문화사회 스포츠 활동 지원현황
  - 4.3.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역할
5. 결론 및 제언

## 국문초록

스포츠 활동은 다문화 학생들의 사회적 위축감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의 기능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한 자료 분석으로 학술지 주제에 관련된 기술과 이에 따른 통계자료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역할이 다문화 학생의 사회통합 기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 및 고찰을 시도했다. 결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www.kci.go.kr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지속적인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각 부처의 산발적인 스포츠 활동의 지원과 정책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셋째, 다문화 학생 각각의 지역과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 활동의 지원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제에** 다문화 학생, 스포츠 활동, 긍정적 역할, 사회통합, 지원정책

## 1.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 증가가 시작된 후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4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48,401(법무부 출입국통계)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단일민족국가에서 벗어나 다문화 및 다인종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결혼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 수 비율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출생아 중 100명 당 6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단위:학생 수, %)

| 연도   | 전체 학생 수 <sup>(1)</sup> | 다문화 학생 수 <sup>(2)</sup> |      |                      |                      |                       |
|------|------------------------|-------------------------|------|----------------------|----------------------|-----------------------|
|      |                        | 다문화 학생 계                |      | 국제결혼 가정              |                      |                       |
|      |                        | 학생 수                    | 비율   | 국내 출생 <sup>(3)</sup> | 중도 입국 <sup>(4)</sup> | 외국인 가정 <sup>(5)</sup> |
| 2012 | 6,730,467              | 46,954                  | 0.70 | 40,040               | 4,288                | 2,626                 |
| 2013 | 6,489,349              | 56,780                  | 0.86 | 45,814               | 4,922                | 5,044                 |
| 2014 | 6,294,148              | 67,806                  | 1.08 | 57,498               | 5,602                | 4,706                 |
| 2015 | 5,890,949              | 82,536                  | 1.35 | 68,099               | 6,261                | 8,176                 |

| 연도      | 전체 학생 수 <sup>(1)</sup> | 다문화 학생 수 <sup>(2)</sup> |      |                      |                      |                       |
|---------|------------------------|-------------------------|------|----------------------|----------------------|-----------------------|
|         |                        | 다문화 학생 계                |      | 국제결혼 가정              |                      | 외국인 가정 <sup>(5)</sup> |
|         |                        | 학생 수                    | 비율   | 국내 출생 <sup>(3)</sup> | 중도 입국 <sup>(4)</sup> |                       |
| 2016    | 5,733,132              | 99,186                  | 1.68 | 79,134               | 7,418                | 12,634                |
| 2017    | 5,592,792              | 109,387                 | 1.91 | 89,314               | 7,792                | 12,281                |
| 2018    | 5,461,614              | 122,212                 | 2.19 | 98,263               | 8,320                | 15,629                |
| 2019    | 5,355,832              | 137,225                 | 2.51 | 108,069              | 8,697                | 20,459                |
| 2020    | 5,355,832              | 147,378                 | 2.75 | 113,774              | 9,151                | 24,453                |
| 2021    | 5,332,075              | 160,050                 | 3.00 | 122,095              | 9,427                | 28,536                |
| 2022    | 5,284,164              | 168,645                 | 3.19 | 126,026              | 9,938                | 32,678                |
| 연평균 증감률 | -2.4%                  | 13.6%                   | -    | 12.1%                | 8.8%                 | 28.7%                 |

- 주: (1)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의 총 학생 수  
 (2)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  
 (3)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4)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 한 자녀  
 (5)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23)의 연도별 학교급별 학생 수와 다문화 학생 수를 재구성한 것임

〈표 1〉에서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초·중등학교(각종 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168,645명으로 전년 대비 8,587명(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관련 교육통계 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하였고, 2012년 다문화 학생 수 46,954명에서 2022년 168,6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초·중등학교(각종 학교 포함)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연평균 13.6%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수의 비중은 2012년 약 0.7%에서 2022년 약 3.19%까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이러한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교류를 한 경험이 적은 한국 사회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1) [https://blog.naver.com/kedi\\_cesi/223217532840](https://blog.naver.com/kedi_cesi/223217532840)(교육통계서비스 공식 블로그)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교류 경험이 미흡하고 사회성과 공존에 대한 개념 확립이 미숙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가정폭력, 인권침해의 문제, 국제결혼 이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학교 적응 문제, 언어능력 부진 문제, 정체성 혼란의 문제, 새터민들의 적응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는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이에 각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 연구자 등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 자녀의 부족한 측면에 근거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가정 출신의 학생들에 비해 발달적 측면에서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되는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언어능력, 경제적 배경, 한국 사회 적응 시기, 체류 기간, 출신 국가 등 비 다문화 학생들과의 상대적 변수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다문화 학생들이 사회적 위축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 생활 및 지역사회 부적응이나 다문화 학생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내면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sup>2)</sup>

다문화 학생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 중 스포츠 참여가 이들이 겪는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Holland, 2012), 학교 생활 적응(이근모, 최동일, 2017), 교우관계와 문화 적응(권민혁, 2020) 및 정서발달(이종욱, 정진성, 김영식, 2014) 등에도 적지 않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사회 소수집단으로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은 경제적인 이유로 스포츠 참여 등 문화적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다문화가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여건

2)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1&siteId=null>(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탓에 사회문화적인 생활반경이 크지 않고, 스포츠 활동 참여율 역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공공영역이나 지자체, 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포츠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발성, 홍보성 행사에 그쳐 지속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방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갈등 해소와 소통, 우울감 해소, 즐거움과 만족감 등이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여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동기부여가 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정책적 실효성과 연결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상태, 홍석호, 2018), 비이성적인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자의식이 강한 시기이므로(김용국, 2016)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인 차이까지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또래 관계(김상태, 2016)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Sport England(1999)<sup>3)</sup>는 스포츠가 청소년 범죄 감소, 체력 및 건강 개선, 무단결석 감소, 청소년의 학습 태도 개선, '활동적인 시민권'을 위한 기회라고 본다. 스포츠 활동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공유된 관심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인을 함께 모을 수 있다(공간). 팀, 클럽, 프로그램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한다(관계

3) Sport England는 풀뿌리 스포츠를 성장 및 발전시키고 영국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1972년 왕립 헌장(Royal Charter)에 의해 설립된 국가유산부(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산하 독립 기구인 스포츠 위원회(The Sports Council)로 시작되었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투자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영국 내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든다. Sport England는 스포츠와 활동에 대한 기존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큰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통합 운동(Uniting the Movement)은 바로 이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잉글랜드의 2021-31년 10개년 전략이다.

적). 가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기능적).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사회 결속력과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 ‘지역사회 자본’을 늘린다(권력)(Richard Bailey 2007).

스포츠 활동은 그 사회의 이념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상호작용의 현상을 통하여 서로가 특정 이념, 행동 규범, 공동의 가치 존중 등을 학습하게 된다. 스스로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규범을 익히고 상대방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동질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적절한 활용성을 부여한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는 취미와 여가활동 및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황향희 2012). 스포츠 클럽을 참여한 청소년들의 몰입경험은 자아존중감과 운동 지속 의지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효율적인 청소년 체육 지도와 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활성화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이건철 2018).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스포츠 활동의 양상을 논의한 연구는 그리 다양하지 않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는 정적이고 비활동적인 한계를 가지며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 또한 위축되어있거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활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 안에서 유창한 언어나 인종, 문화,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서로 접촉하고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므로 상호 간에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기에 다양한 경험 및 과제설정이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김동학 남윤신 2019).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매개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의 의미로도 작용한다. 스포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며 나아가 부모와의 갈등도 허물기도 하는 관계변화의 의미로 작용하는 고무적인 역할도 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도록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김재은·윤필규 2014).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을 때 학교에서의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 연구에서 학교 수업, 교우관계, 교사 관계의 세 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스포츠 활동을 참가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활동 참가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학교 수업, 교우관계, 규칙준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참가 기간이 길수록 교우관계 및 규칙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욱·정진성·김영식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수월하고 안정적 적응과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2>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경험 과정을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개방 코딩 결과이다(김동학·남윤신 2019).

<표 2> 다문화 청소년의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개방 코딩 결과

| 인과적 조건-스포츠 필요성  | 상황적 맥락-국가적 지원  |
|---|--|
| <b>스포츠 중요성</b> -체육시간이 제일 좋아요(KMS,PHN,KHS,CMH),다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체육이 빠지면 안돼요(CML/연구원), 언어교육이 많은데 그럴 때도 체육 프로그램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KHM/강사)           | <b>적극적 지원</b> -작년에 같이하던 친구는 인원이 줄어서 못했어요(CMH), 사실 0000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죠(CML/연구원), 매년 사업을 진행하는데 점점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가한다고 볼 수도 있죠(CML/연구원) |
| <b>스포츠 순기능</b> -나도 거기(홀컵)에 넣을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KDH), 친구들과 언니가 끝까지 다 추고 정말 잘 쳤는데 어느새 다 추니 좀 보람 있었어요(SMJ), 배트민턴을 연습했더니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 <b>대학의 참여</b> -대학교 와서 해서 좋아요(LDH),우리 대학에 지원 인프라가 갖춰있어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CML/연구원), 대학시설을 이용하니까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

|   |   |
|---|---|
| <p>인과적 조건-스포츠 필요성</p>   | <p>상황적 맥락-국가적 지원</p>  |
| <p>(CMH), 선생님들이 같이해주셔서 더욱 재미있었어요(PHN)</p>   | <p>점이 저한테나 학생들한테 매우 좋은 점이죠(JJS/강사)</p>  |
| <p><b>스포츠맨십</b>-다 같이 끝까지 살자고 다 짐함(LDH), 같은 편이라 응원 했어요(CDH),우리 팀이 졌지만 아깝지 않았 습니다(CDH), 친구들이 도와주니 뿌듯한 느낌(KMS)</p>   |   |
| <p>중심현상 - 스포츠 참여</p>  | <p>중재적 조건 - 특성파악, 프로그램</p>  |
| <p><b>즐거움</b>-피구 너무 재미있어요(KHS), 댄스는 다음에 또 배워보고 싶어요(LSM), 시간이 빨리 가니 너무 아쉬웠어요(KHS), 태권도 발차기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KHS), 오늘은 배가 아팠는데 피구를 한다고 하니 배가 아픈것도 잊고 했어요(KJHS), 서로서로 보며 즐거워 한다(PJW/연구원).</p> | <p><b>참가자 이해</b>-가르치다 보면 차이가 없어요(KHM), 언어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나이 또래에 같은 친구들이죠(PJW/연구원), 최근에는 다 문화 교육이 좋아져서 한국어 습득도 빠르고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CML/연구원)</p> |
| <p><b>배움/학습</b>-저 혼자 한 번에 성공했는데 기뻐요(PHL), 처음 한 배구를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쉽게 잘 배웠어요(NLC),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KDM), 오늘 두 분의 선생님을 따라 많이 배웠습니다(KDM).</p>                       | <p><b>프로그램 개발</b>-다문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해요(PJW/연구원), 사전에 검토할 게 많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시설이 가능한지, 지도자가 있는지, 일정 등(CML/연구원)</p>                              |
| <p>상호작용 전략 - 어울림 참여</p>   | <p>결과 - 다문화에서 한문화</p>   |
| <p><b>참여 확대</b>-전략적으로 한국 학생을 참여시켰는데 그 효과가 큼(CML/연구원), 한국 학생들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PJW/연구원), 00(한국학생)이가 참 잘 챙기는 모습(JJS/강사)</p>   | <p><b>문화융합 한문화</b>-체육 시간에는 잘 뛰 어다니는 거 같아요. 원래 안 그러는데(LSM), 눈빛만 봐도 알죠 이제(LDH), 전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다른 친구들을 지도할 때랑 다르지 않 죠! 그 이야긴 같은 또래 학생이란 얘 기죠(KHM/강사)</p>   |
| <p><b>어울림 프로그램</b>-최근에는 어울림 프</p>   | <p><b>사회통합과 성장</b>-나도 더 노력해야겠</p>   |

| 인과적 조건-스포츠 필요성  | 상황적 맥락-국가적 지원   |
|---|---|
| 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형식도 많은거 같아요(CML/연구원), 약간 파일럿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CML/연구원), 지원대상을 다문화 청소년으로 한정하니,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죠! 참 아이러니해요(PJW/연구원) | 다는 생각을 했어요(PHL), 친구(한국 학생)는 우리 잘 챙겨요(PJS), 자기들 끼리 마음을 맞추더라고요(KHM/강사), 여기서 하는 만큼만 사회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JJS/강사), 한국 친구들 몇 명이 함께 하는데 그건 참 잘한 거 같아요(CML/연구원), 어울려서 뛰어노는 거 보면 이 프로그램 참 잘했구나 하고 생각이 들죠(PJW/연구원) |

출처: 김동학, 남윤신,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인용하여 연구자 재정리

다문화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경험 중 스포츠의 중요성과 순기능, 스포츠맨십 등의 측면에서의 반응도를 볼 때 이들은 공정과 경쟁, 협동심과 인정 등의 개념 형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적, 지역적 지원과 협력 체계가 지속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다양한 스포츠를 통한 배움과 학습의 경험이 사회적 통합의 역할에서 상식적 가치 기준의 상승과도 상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 토레 학생과 스포츠 활동의 어울림에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전혀 문제 될 수 없고, 한국어 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도 제시되었다. 이는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 간의 언어적 장벽을 쉽게 해소시킬 수 있고 오히려 빠른 언어 습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스포츠 활동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에 합당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략적으로 일반학생을 참여시켰으나 협동과 배려의 어울림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향후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참여의 확장성과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연구가 일반화되는 것에 이어 실

질적, 주기적 활동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에서도 보듯이 국가적 지원과 대학의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은 정책적인 구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현재 다문화 학생들의 정책적 지원으로는 교과 지원과 한글 교육 정도에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조화와 부적응에 대한 실질적 수용을 고찰하는 것에 중요성을 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 초점을 둔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통합의 일환으로서 스포츠의 기능을 다루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스포츠 활동이 다문화 학생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을 살피고 활발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 된다.

### 3. 다문화사회 스포츠 활동의 해외사례

#### 3.1. 해외 다문화 스포츠 활동

해외의 다문화 선진국들도 다양한 스포츠의 순기능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생겼고 급격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세계 스포츠 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이주해 온 각 나라의 스포츠 콘텐츠를 공유하고 체험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스포츠클럽을 통하여 다문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다문화 이주민들을 스포츠클럽에 가입시켜서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 횟수를 늘려서 문화적인 이질감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호주에서는 'Intercultural Sports and Activities Day'라는 행사를 통해 한국의 태권도를 비롯하여 소수민족이 참여하여 다양한 전통놀이를 보여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양정은, 2005). 프랑스의 경우 체육이 사회경제적 기능, 사회문제 예방 기능, 사회통합 기능, 준법

정신 함양 기능 등의 사회적 가치 함양에 기여가 크다고 보고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고 있다(권민혁, 2008).

이민자들의 나라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문화 적응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많은 소수민족에 대한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미국 사회로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 및 적응을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한동유, 길성민, 배원열, 2021).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해외사례 중 다문화 이주민들과 기존 국민들 간의 접촉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포츠 활동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의 가시적 효과를 내놓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따로 살펴보고자 한다.

### 3.2. 독일 다문화사회의 스포츠 활동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후 독일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급격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그 후 공산권이 몰락하고 아랍과 아프리카 등에서 내전이 발생하며 이를 피해 넘어 온 난민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독일은 이주민의 배경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3%를 차지하여 2018년 기준 독일 인구인 8,290만 명 중에서 1,930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 3>을 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많은 증가 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 중 16세까지가 11.9%, 16-18세가 1.9%, 18-25세는 11.25%의 연령별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유진영 · 김기홍 2019).



현 방안 모색에 노력해 왔다, 연방 내무부는 1989년 8월 24일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독일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스포츠(Sport mit Aussiedlern)’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스포츠진흥예산은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연방 내무부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독일스포츠연맹과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별도의 예산을 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책정하였다. 그 대상으로 독일 거주 이주민, 특히 이주 청소년들을 스포츠클럽회원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이주 청소년의 스포츠성취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줄 뿐만 아니라 자아의식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송형석 2010).

1982년 초기 스포츠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형태인 “국경 없는 스포츠(Sport ohne Grenzen)”가 독일 헤센 연방주의에서 실시 되었다. 스포츠클럽과 체육연맹, 지역 학교가 주최하여 이주민 자녀의 스포츠 클럽 가입과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학교에 다양한 스포츠 도구를 배치해 사용하게 해 보며 스포츠 축제에 대한 호기심 유발과 참여 동기 부여를 하여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 접촉유도 위주의 놀이와 게임으로 구성하여 이주민 아동들에게 다문화 스포츠 축제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에 회원가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참여방식에서 트레이닝 위주의 스포츠 게임과 놀이 위주의 스포츠와 차이를 보이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또한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주민들은 독일 스포츠클럽에서 보다는 러시아 축구동호회와 같은 자국민 간의 모임을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bel, 1986). 이에 이주민의 스포츠클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의 접근방식을 그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 개선, 보완하였다(허윤선, Peter Elflein, 김경숙 2012).

최근 독일은 이슬람계 이주민과 큰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슬람계의 경우 다른 종교적 신념과 성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여성은 수영 등 특정 종목은 참여하고 있지 않아 혼자 참여

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 소외로 따돌려질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독일은 언어나 인종, 문화, 성별, 종교 등 차별의 벽을 허무는 기능으로 체육활동이 가장 적합하다 보고 주요 정책으로 폭력 예방과 통합에 초점을 두었다. 극단주의자의 폭력과 증오 범죄 등을 다양한 체육 활동을 활용한 대처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육을 통한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민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서도 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권민혁 2008).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스포츠의 활용은 오래된 역사를 거치며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며 발전하고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통합을 스포츠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잦은 접촉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나 관계 형성에 긍정적 효력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로 갈등과 분열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실 스포츠라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매개로 동등한 위상의 공유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적당하고 현명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독일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의 노력은 계속되어왔고, 이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확장, 변경 실행하며 '스포츠를 통한 통합'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고 함께 공생해 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독일 사회와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배척, 갈등과 거부감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현실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도 사회통합의 다양한 실천 의지를 위해 독일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의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4. 다문화사회의 스포츠 활동 현황

### 4.1.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 현황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사회통합에서의 긍정적 작용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고 선진국의 해외사례에서도 그 순기능이 증명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이 실제 즐기는 여가 생활은 한계적이고 단순하며 스포츠 활동 또한, 원주민의 그것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은 여가(자유)활동에 하루 평균 211.25분(약 3시간 31분)을 사용하고 있다. 여가 시간에는 주로 SNS(42.5%), 친구와 놀기(39.8%), 게임(39.0%), TV시청(38.5%), 휴식/수면(32.3%), 인터넷 서핑(26.2%) 등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집(73.6%), 학교(34.2%), PC/게임방(22.9%), 지역 아동/청소년/문화센터(19.5%), 놀이터(18.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포츠 참여의 선호도(56.7%)와 스포츠에 대한 관심(49.5%)도 중간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는 41.3%의 학생들이 주 1-2회(일)만 스포츠에 참여하였고, 참여하지 않음(27.8%), 주 3-4회(일)(17.7%), 주 5-6회(일)(7.3%), 그리고 매일 참여는 5.8%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체의 즐거움(재미) 59.7%, 건강/체력 증진 59.2%, 기분이 좋아짐 56.8%, 체력(키) 향상과 몸매 관리 52.7%, 스트레스(불안) 해소 42.8%,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이 42.6%, 대인(친구, 선생님 등) 관계 형성 40.0%, 주변인(부모, 선생님 등)의 권유 30.8%, 그리고 진로나 진학이 20.0%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스포츠 참여에 대한 효과로 건강/체력 증진 77.4%, 자체의 즐거움(재미)71.3%, 체력(키) 향상과 몸매 관리 69.5%, 스트레스(불안) 해소 60.4%,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 57.7%, 대인(친구, 선생님 등) 관계 형성 51.9%, 다른 사람을 이해 41.5%, 진로나 적성을 발견 35.3%, 공부에 도움 30.1%, 그리고 애국심 강화는 28.1%로 나타났다(노용구·김양례·김권일·김미숙 2017).

#### 4.2. 다문화사회 스포츠 활동 지원현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 정책이나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개별 단체의 지원이 있다. 개별 단체로 다문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 하고 있는 단체는 양준혁 야구재단

의 ‘멘토리 야구단’이 있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삼성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 다문화 대안학교나 지역 대학교에서 그들 지역 교육청의 지원으로 성장지원 및 신체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래 <표 4>는 2017년 정부 각 부처의 『국민생활서비스 정책』 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표 4> 『국민생활서비스 정책 2017』중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부처          | 주관 부서/기관                   | 지원사업명                    | 대상  |
|-------------|----------------------------|--------------------------|---|
| 여성<br>가족부   | 한국건강가정<br>진흥원<br>다문화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li> <li>■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br/>가족</li> </ul>  |
|             | 경력단절여성<br>지원과              | 결혼이민여성<br>인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여성</li> </ul>  |
| 법무부         | 사회통합정보망                    | 이민자<br>사회통합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기간이 만료 되지 않<br/>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br/>거소 신고증을 소지하고<br/>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br/>국인 및 귀화자</li> <li>■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br/>한 외국인</li> </ul> |
| 농림축산<br>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결혼이민여성<br>농업교육<br>청소년 캠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br/>여성과 가족</li> </ul>   |
| 해양<br>수산부   | 해양레저과                      | 다문화·저소득층<br>자녀 해양캠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의 자녀</li> <li>■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li> </ul>  |
|             | 수산정책과                      | 어촌 다문화가정<br>모국방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 다문화가정</li> </ul>   |

출처: 각 부처 2017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계획

각 부처의 주관 부서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명을 보면 기본적인 교육 수준에 지나지 않고 체계적, 지속적이지 못한 내용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을 시도하는 정책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과에서 실시하는 해양캠프 정도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아래 <표 5>는 2023년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정의 지원현황이다.

<표 5> 2023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부처      | 주관 부서/기관           | 지원사업명                           | 대상  |
|---------|--------------------|---------------------------------|---|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또바기체육돌봄' 사업                    | ■ 다문화 가족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 |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br>가족센터 |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23~2027)」 | ■ 다문화 여성 및 가족                                   |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본부               | 다문화티비(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 ■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 여성과 가족                           |
|         | 농식품부               |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           |   |
|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국 선원 정책과       |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 붙인다           | ■ 노동권 인권 다문화 성인지 교육                             |
| 교육부     | 교육복지정책과            |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 안                  | ■ 다문화 학생  |

출처: 각 부처 2023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계획

<표 6>에서는 위 <표 4>와 <표 5>의 2017년과 2023년의 다문화 지원사업을 비교하였을 때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6〉 각 부처의 변화 된 내용 (2017년과 2023년 비교)

| 부처      | 내용   | 비고   |
|---------|--|--|
| 문화체육관광부 | ‘포바기체육돌봄’(2021년 신설) 사업 시작                            | 이주 배경 및 다문화 청소년의 스포츠 복지 실현 및 사회,문화적 갈등 극복에 기여          |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의 사업 유지<br>‘온가족보듬사업’ (2024.1.16.발표) 시행 | 1인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가족형태별 서비스 제공 방식을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 |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와 다문화 등의 지원 없음                                   | 선박과 해수 오염 등이 우선 정책                                     |
| 교육부     | 교육기회, 학교적응, 다양성 공존 등 세부적 계획안 마련                      | 2017년보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적극성 확보                             |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 부처별 다문화에 대한 정책은 체감할 만한 수준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스포츠 활동으로 사회통합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미래는 아직 태동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돌봄 사업을 시작하며 다문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었다고는 보이나 전국적인 활발한 시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 활동의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참고하기 위해 아래 〈표 7〉을 제시하였다.

〈표 7〉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스포츠 활동 해외사례 비교

| 국가 | 정부/지역 정책   | 스포츠활동 기능                   |
|----|--|----------------------------|
| 호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클럽육성</li> <li>■ ‘Intercultural Sports and Activities Day’ 지속적 소수민족 전통놀이 행사 개최</li> </ul> | 원주민과 접촉횟수 늘려 문화적 이질감 감소 기능 |

| 국가  | 정부/지역 정책   | 스포츠활동 기능   |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적극 개입</li> </ul>   | 사회경제적, 사회문제예방, 사회통합, 준법정신함양 기능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민족에 대한 스포츠 활동 지원</li> <li>■ 스포츠를 통한 동화정책 유도</li> </ul>  | 소수민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주류문화 동화 및 적응 기능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스포츠연맹- '이주배경을 지닌 시민의 스포츠에 대한 기본방침'(1981년 공포)</li> <li>■ 연방내무부-'이주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프로젝트(이주 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 회원 만들기)</li> <li>■ 연방정부-'체육을 통한 통합' 프로그램 활용</li> </ul> | 원주민과 이주민의 접촉으로 서로 수용, 친교, 친분 형성 기능<br>청소년 지역사회 위치 확립<br>자아의식 형성 기여, 사회 통합 기능<br>증오범죄, 극단주의자 폭력 대처방안으로 적극활용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산하 다문화 학생 스포츠 활동 체험 행사(단발성, 국지적)</li> <li>■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개별 단체 활동(국지적, 소국적)</li> </ul>  | 일회성, 단발성 캠프. 기본적 교육 수준<br>지역 소규모 한계성   |

출처: 위 3.1. 해외 다문화 스포츠 활동 내용 중 해외사례 정리와 한국 다문화 스포츠 활동 부처별 지원사업 비교

#### 4.3.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역할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기능은 스포츠가 가지는 순기능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공정성과 올바른 경쟁심, 협동심과 스포츠맨십 등의 개념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서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배움과 학습의 형태가 익혀지면 발전적 단계로의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며, 상대적 가치 기준을 상승시키는 연습이 될 것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상쇄되는 방법을 찾을 때, 스포츠 활동에서 그 장벽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지속적인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의 노력을

시도하였고,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형식을 보완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례를 비추어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서 융합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며 또 다른 결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스포츠 활동을 접목한 사회통합기능을 만들어 낸 해외사례와의 비교는 불평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인구와 그로 인해 곧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결단코 빠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단일민족’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진 우리나라는 이제 확실한 다문화 국가에 들어섰다. 인구감소는 급속화되어 OECD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심각한 고령화 문제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사회문제를 지금의 다문화 학생들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다문화가정 출산 아이의 수가 부모 모두 한국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슈는 이미 우리 사회가 깊숙이 다문화화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의 희망이 될 다문화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치유하는 과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갈 몫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학생들이 성장환경에서 겪게 되는 우울감과 학교와 사회생활의 부적응, 문화 적응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매개 역할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과 순기능, 스포츠맨십의 활성화는 스포츠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이와 함께 끊임없는 적극적,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반면, 스포츠의 사회통합 기능에 대한 인지와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실천 의지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의 부서나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는 있으나, 일률적이거나 중복적인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023년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에서는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학교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환경 조성, 다문화 지원체제 내실화” 등의 추진과제를 내세워 다문화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정책안을 세웠다. 그러나 급속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추상적인 지원책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과 전문적인 방향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추진과제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내세우고 세부적 지원안을 발표했다. 점차 세부적인 안으로 발전하는 계획을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스포츠 활동을 활용한 지원 사항은 전무하다. 언어교육이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의 수동적인 방안의 통합 과제도 중요하나, 다문화 학생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 스포츠 활동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언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 학생들이 즐기기를 희망하는 스포츠 종목을 볼 때 수영, 야영, 스키, 스케이트, 래프팅 등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수상스포츠나 계절 스포츠 종목인데 반해, 실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줄넘기, 걷기, 자전거 등의 종목으로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체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다문화 학생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활동으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방안이 시급하므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과 지역에서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체계와 지원의 필요성이다. 이제까지의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형식적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속화되도록 연결시켜야 한다. 지자체나 단체들의 특별한 날 이벤트식 홍보성, 보여주기식 체험 및 행사 활동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장기

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둘째,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과 정책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대상 스포츠 활동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바램대로 따로 설계되고 진행되어 일관성과 연계성이 없어 단발성으로 마치기가 쉬울 수밖에 없다. 부처의 특성상 상호 보완하거나 협력을 구축하기가 힘들 것이므로 '사회통합정책기관'같은 부서를 만들어 다문화 정책을 일원화시켜서 전문화, 책임화하여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방향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셋째, 다문화 학생의 특수성을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정책화 해야한다. 도시와 농, 어촌 등 다문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비 다문화 학생의 생활과 환경이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듯이 다문화 학생의 경우 혜택, 지원과 교육이 지역별로 아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세부적인 연구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지역 특성 등 그에 맞는 다양한 해결 방안으로의 스포츠 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한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자료로 학술지 주제에 관련된 기술과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 사례를 통해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역할이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활동이 사회통합 기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및 고찰을 시도했다. 그로 인해 다문화 학생의 사회 적응력 향상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스포츠를 통한 다문화 학생의 문제 해결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다양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학생과 적극적 스포츠 활동에 관련한 빈도, 만족도, 사회참여 현황 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실증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 입안자들이 다문화 학생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스포츠 활동의 장을 열어주고 중앙과 지역, 학교와 단체 등에서 장기적인 지원과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키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의 연구와 정책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합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문화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문화 관련 논문이 이민, 이주 노동, 결혼 이주자, 다문화 정책, 언어교육 등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여가 생활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스포츠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스포츠가 가진 잠재력은 삶의 질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자칫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 구성원들 간 화합을 이끌어낼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학생의 스포츠 프로그램의 왕성한 참여를 이끌어내어 현재의 소극적 사회참여와 사회적응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민혁(2008). 다문화사회와 체육정책의 대응; 다문화 사회에서의 체육정책 방향, 〈스포츠과학〉 103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쪽-8쪽.
- 권민혁(2020). 다문화청소년의 체육특기적성활동 참가와 교우관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39쪽-47쪽.
- 김경숙·김도연·주성순(2009). 독일 스포츠 다문화 교육의 운영 현황 탐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1), 11쪽-26쪽.
- 김동학·남윤신(2019).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체육과학회지〉 28(3), 한국스포츠학회, 483쪽-495쪽.
- 김상태(2016). 다문화학생과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정서공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281쪽-290쪽.
- 김상태·홍석호(2018).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기초점주의와 정서조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2), 667쪽-677쪽.
- 김용국(2016).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개인적 특성과 학교생활만족도 및 자아실현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195쪽-205쪽.
- 김유식·이솔잎·박세혁·양희원·이충섭(2019).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이민자의 여가스포츠경험, 성격특성 및 문화적응의 관계에 관한연구,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7호, 한국사회체육회, 253쪽-264쪽.
- 김재운 · 나재권 · 이문진(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스포츠 여가활동2(1), 한국체육철학회, 1쪽-18쪽.
- 노용구 · 김양례 · 김권일 · 김미숙(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실태 분석연구, 〈한국스포츠 개발원〉, 181쪽-183쪽.
- 박미정(2016). 사회적 지지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0(2),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53쪽-68쪽.
- 송형석(2010).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 수단으로서 스포츠, 그 가능성과 한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8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 양계민 · 정진경 · 강혜원(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보고서〉 8(7),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3쪽.
- 양정은(2005). 다문화 스포츠 행사, 최고 인기는 태권도. 〈The Sydney Korea Herald〉.
- 유진영 · 김기홍(2019). 독일의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 지원 정책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22(2), 33쪽-56쪽.
- 이건철(2018). 청소년 스포츠클럽 참여자의 몰입경험, 자아존중감, 운동지속의 도간의 관계, 〈한국 산학 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9(10), 368쪽-376쪽.
- 이근모 · 최동일(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경험, 〈한국체육학회지〉 56(2), 115쪽-124쪽.
- 이종욱 · 정진성 · 김영식(2014).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학교생활적응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131쪽-146쪽.
- 이종욱 · 정진성 · 김영식(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5), 167쪽-183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08-R07.
- 한동유 · 길성민 · 배원열(2021). 문화자본, 스포츠문화자본 및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소고.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5(3), 35쪽-58쪽.
- 허윤선 · Peter Elflein · 김경숙(2012). 독일 상호문화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스포츠교육학적 접근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197쪽-218쪽.
- 황향희(2012). 다문화사회의 문화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으로서 여가스포츠 활용, 〈한국스포츠학회지〉 10(2), 한국스포츠학회, 115쪽-123쪽.
- ABEL, T.(1986). Ausländersport und Kulturkonflikt Sport for foreigners and cultural conflict, Sportunterricht, 35, 134쪽-137쪽.
- Beiley, R.(2005).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social inclusion 57(1), 71쪽-90쪽.
- Holland, M. M.(2012). Only here for the day: The social integration of

minority students at a majority white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85(2), 101쪽-120쪽.

교육통계서비스(2023). 다문화 학생 현황, 2024.1.30.

국민생활서비스 정책(2017).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2023.7.23

문화체육관광부(2023). 또바기 체육돌봄 사업, 2024.2.3.

법무부 출입국 통계(2024).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2024.3.9.

사회통합위원회(2020). 독일 다문화(이민자 통합) 정책현황, 2024.2.2.

양준혁 야구재단(2011). 2023년 멘토리 야구단, 2023.7.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24.1.15.

## 필자 소개

성 명 김지애

소 속 동아대학교 국제학과 박사과정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916번길 301

전자우편 aljji49@naver.com

## | Abstract

# The Effect of Sports Activities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Research on Positive Roles

Kim, ji-ae  
(Dong-A University)

Sports activities play a role in relieving the social intimidation and acculturation stress of multicultural students, resolving the heterogeneity of language and culture, and serving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positive role of sports activities on the contribu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to social integration by using subject-related techniques and statistical data from academic journals as main data through data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I tried. As a result, three points a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organic and continuous linkage programs between the central and regional areas to support the sports activities of multicultural students. Second, the support and policies for sporadic sports activities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must be unified. Third, policies and support for sports activit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reg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ulticultural student must be presented.

**[Key words]** Multicultural students, sports activities, positive role, social integration, support and policy

투고일 2024. 02. 13 / 심사일 2024. 03. 09 / 게재확정일 2024. 03. 15